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1월 16일(일) 제1564호

우리가 다음세대 응원단!

2026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 모집 ... 차세대 교사 175명, 사랑부 교사 40명

다음세대 응원단을 모집한다. 2026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가 11월 16일(일)까지 이어진다. 현재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는 3,372명(서빙고 823명, 양재 676명, 도곡 222명, 캠퍼스 1,651명), 사랑부 교사는 310명(서빙고 160명, 양재 60명, 캠퍼스 90명)이다. 차세대 교사 175명, 사랑부 교사 40명이 더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 섬기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소속 공동체 담당목사에게 추천을 요청한 다음,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또는 하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예상옥 교사(서빙고 파워웨이브 2부)는 “지난 20여 년 교사 생활은 아이들을 가르친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는 시간이었다”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늘의 상을 누리는 교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2026년 신입 차세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사명교육’도 한다. 목요일 12월 4일(목)부터 26일(금)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 토요일 12월 6일(토)부터 27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사랑부 교사교육은 장애인



사역본부에서 별도로 한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및 도곡 02-570-7436
서빙고 사랑부 02-3215-3263

양재 사랑부 02-570-734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OFFC) 종료

2025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지난 11월 5일(수)부터 8일(토)까지 ‘온누리 40년,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을 주제로 열렸다. 5일(수) 개막예배에서는 강부호 목사가 ‘믿음의 본질로’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6일(목)과 7일(금)에는 김지연 교수(한국 가족보건협회 대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선범 목사(양재온누리교회) ‘행동하는 크리스천으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본행사는 8일(토)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성도, 청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강의는 이재훈 위임목사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을 주제로 했다.

박태성 교수(미래성장위원회 위원)가 ‘데이터와 설문분석으로 본 온누리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다음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 설문조사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패널토의는 ‘온우리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과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관련기사 4면>. 공모전 ‘Acts29, 청년이 쓰는 다음 40년’ 발표 및 시상도 했다.

2025 OFFC 영상은 QR 코드로 접속해서 다시 볼 수 있다.



OFFC
다시보기

2025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양재 사랑홀

2025년 온누리교회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오는 11월 29일(토) 오후 4시 양재 사랑홀에서 드린다. 이날 권사 167명(명예권사 4명, 권사 163명), 안수집사 473명(남 162명, 여 311명)이 임직된다(11월 14일 기준).

권사·안수집사 임직 대상자들은 임직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지각이나 불참하면 임직이 인정되지 않는다. 복장은 남자 검정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 검정색 또는 짙은색 바지 정장(자켓 필수)에 흰색 블라우스 또는 셔츠다.

임직예배 당일 교회 주차장은 4인 이상 동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차량은 양재 주차빌딩(양재역주차장, 서초구 강남대로221)을 이용해야 한다(비용 개인 부담). 이날 정오부터 오후 4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양재역과 교회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2025 권사·안수집사 임직대상자들은 9월 6일 개강한 ‘임직자스쿨’에서 훈련받았다. 임직자스쿨에서는 ‘선교적 교회’,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 ‘부르심과 헌신’, ‘행복한 가정과 리더’, ‘안수집사의 실제’, ‘권사의 모델’, ‘일터영성’, ‘교회론과 목회철학’ 등을 주제로 훈련이 이어졌다.

/ 홍하영 기자

‘2025 엔젤트리’ 사연 모집

16일까지 홈페이지, 목회행정실

‘2025 엔젤트리’ 사연을 11월 16일(일)까지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비치된 사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사연 신청서에는 돕고 싶은 이웃의 사연과 연락처, 도로명 주소, 전하고

싶은 선물, 신청자 이름, 소속 공동체 및 다락방,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웃에게 전달할 선물은 5만 원 이하(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2025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2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게시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화재 대피 훈련 실시

11월 16일 서빙고 2부 예배 직후

온누리교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한 예배 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 대피 훈련’을 11월 16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예배 직후 실시한다.

본당, 비전홀, 시온홀, 자모실, 두란노홀, 콘서트홀, 사랑홀 등 교회 주요 시설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과 화재 진압 시연 등을 한다.

동빙고근린공원 실습장에서는 심화 안전 교육을 한다.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 진압 실습, 심폐소생술(CPR)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훈련, 소화전 및 비상발신기 사용법 실습 등을 한다.

/ 홍하영 기자

공동의회

일시: 11월 23일(일) 3부예배 후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교인
안건: 임직자 후보 투표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가나안 땅 분배가 완료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수 21:43, 45). 하나님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지파별로 땅이 분배된 것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 약속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남은 일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 민족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지역에 회막을 세우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수종 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읍도 분배해 주셨습니다. 땅 분배를 통해 각 지파가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땅 분배를 통해 하나 되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 분배 끝에서, 절정에서 하나 됨을 명하십니다. 땅을 주시는 축복을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됨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 됨을 이루는 오묘한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미물의 세계에서도 서로 하나 됨을 유지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신실하게 책임을 다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자신의 책무를 담당함으로 하나 됨을 유지하고, 생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하나 됨의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땅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여호수아 22:1~9, 33~34

“각자가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공동체에 오해와 왜곡된 소식이 없도록 늘 대화하고, 진실을 찾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고전 12:26).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동체 의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각자의 땅을 분배받았으니 하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그들은 서로에게 신실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 대하여 신실함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만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죄의 첫 번째 증상은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가족들을 남겨 놓고 함께 싸우러 서편까지 건너온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소유한 가족들도 많고 해서 강을 건널 수 없고, 여러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 남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자발적인 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서편으로 건너와서 치열하게 함께 싸웠습니다. 중간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땅 분배가 끝난 이후에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이제 당신들은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인정합니다. 서로에게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다”

둘째,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는 서로에 대한 격려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합니다(5~6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같은 말씀입니다.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했던 말을 다른 단어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많은 물질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백성들에게 보여준 태도를 보면 큰 그릇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희생으로 자신의 이름과 권력을 나타내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유명하게 해 주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후자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두 지파 반을 축복하

고, 격려하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이제 명예롭게 떠나도록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일어나는 오해를 해소했다”

셋째, 그들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오해를 해소했습니다. 사단이 공동체를 허물 때 사용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에는 언제나 오류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왜곡될 수 있고, 내가 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2장에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이후에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해서 보냈는데,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온 회중이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리다니 이게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나? 오늘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 아니냐?’”(16절).

요단 동편에 간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다니, 여호와께 등을 돌리다니,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걸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단은 신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다른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독립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표시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나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2장에 두 개의 사건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브올’ 사건입니다.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야간이 탐욕을 일으켜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들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지파라도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분은 모든 백성에게 공동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편 지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교육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께 등을 돌리려 하거나 그 위에 번제나 곡식제사나 화목제를 드리려

고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추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두셨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안에 아무 뒤편이 없다’면서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이 아닌 제단을 쌓자고 말했습니다”(23~26절).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고, 후손들이 그렇게 취급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하나’라는 것을 후손들이 깨닫게 하려고 교육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말로 전해지는 소문은 확대되고 부풀려지고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자칫하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들은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오해라고 설명합니다. 동편이나 서편이나 동기는 같았습니다. ‘하나 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다음세대에 하나 됨이 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증거물을 남겨려 했고, 다른 한쪽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닌가 두려워서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서쪽 지파는 분열과 배반의 표시로 보았고, 동쪽 지파는 도리어 하나 됨을 지키려는 신실함의 표시로 보았습니다. 선의에서 난 행동이 오해가 되어서 하나 됨이 깨질 뻔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로 올라가 그들과 싸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 그 제단을 옛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임에 대한 우리 사이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뜻에서였습니다”(33~34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증거물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자가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공동체에 오해와 왜곡된 소식이 없도록 늘 대화하고, 진실을 찾고, 서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가 다투고 분열하고 깨어지고 싸우는 모습이 없도록 거룩한 하나 됨을 계속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임신 후기 낙태가 여성을 돕는 것일까?

누군가 “임신 후기 낙태는 매우 드물고, 오직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행해진다. 임신 후기 낙태를 제한하면 여성들을 해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낙태 옹호 단체들은 종종 임신 후기 낙태가 극히 드물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체 낙태의 91%가 임신 초기(첫 3개월)에 이루어지고, 9%만이 그 이후에 행해진다. 따라서 그들은 임신 후기 낙태는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불가피할 때만 시행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편의상의 이유로 임신 후기 낙태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 “임신 후기 낙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임신 후기 낙태는 흔하며, 다수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할 때만 시행되는 게 아니다. 낙태를 지지하는 연구기관인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86만 2천 건의 낙태가 보고된다. 그 가운데 13주 이후 시행되는 낙태가 단 9%라 하더라도, 그 수는 연간 77,580건에 이른다. 이는 대형 미식축구 경기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아기 수와 맞먹는다.

또한 임신 후기 낙태 대부분 산모나 태아의 건강과 관련된 게 아니다. 물론 ‘건강(health)’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폭넓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13주 이후 시행된 낙태 중에서 최소 69%는 태어나 산모의 건강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구트마허가 말하는 ‘건강 문제’라는 범주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낙태’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건강 문제’란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었다고 느끼거나 우울증이나 다른 생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는다. 팔다리가 하나 씩 뜯겨 나가며, 피를 흘려 죽는다.”

낙태 옹호자들은 종종 임신 후기 낙태를 미화하거나 그 실체를 외면한다. 그러나 세상은 낙태 피해자의 실제 이미지를 봐야 한다. 낙태 옹호자들은 종종 프로라이프 진영이 사진을 조작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물어야 한다.

“임신 후기 낙태는 흔하며,
다수는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임신 후기 낙태는 매우 잔혹한 시술이다.”
“논쟁의 핵심은 여성 혐오가 아니라,
인간 가족에 누가 포함되는가이다.”

명을 위협하지 않는 상태를 겪는 여성을 포함한다. 요컨대, 미국에서는 매일 의학적이지 않은 이유로 임신 후기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임신 후기 낙태는 끔찍한 시술이다. 낙태 시술자 워런 헨(Warren Hern)은 임신 후기 낙태를 “절단되는 감각이 전류처럼 집게를 타고 손끝으로 전해진다”라고 묘사했다.

미국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는 다음과 같이 썼다.

“태아는 많은 경우, 성인이나 어린이가 죽는

“진짜 낙태 사진은 어떻게 생겼는가?”

낙태의 본질은 임신 후기 낙태에서도 여전히 동일하다. 임신 후기 낙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그 어떤 이유도 무고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절단해 죽이는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셋째, 핵심 문제는 여성에 대한 사랑의 여부가 아니라, ‘누가 인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가’이다. 낙태 옹호자들은 종종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들

’로 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즉, 태아가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전제다. 만약 태아가 인간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면, 낙태를 제한하는 것은 단지 타인의 도덕관을 여성에게 강요하는 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전제가 아니다. 논점은 ‘누가 인간인가’에 있다. 만약 모든 인간이 같은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태아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 낙태는 의도적으로 무고한 인간을 살해하는 행위다. 태아가 생명권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여성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되는가’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점, 태아가 인간 가족의 구성원인가 여부다. 그러므로 임신 후기 낙태 문제로 도전을 받을 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임신 후기 낙태는 흔하며, 다수는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임신 후기 낙태는 매우 잔혹한 시술이다.”
“논쟁의 핵심은 여성 혐오가 아니라, 인간 가족에 누가 포함되는가이다.”

원문: 콜슨 센터 유튜브 채널 ‘What Would You Say?’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삶과 신앙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중구 장로
(동작공동체)

1979년 봄, 대학교 2학년이던 나는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 선고는 인생의 막다른 벽이었다. 그 벽 앞에 아무 소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있던 그때 세명의 전도자가 매일 같이 찾아왔다. 거절과 분노, 냉소로 일관

하던 나의 마음은 끝내 한밤의 고요 속에서 무너졌다. 던져버린 성경을 다시 펼쳤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눈을 멈추게 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위로부터 빛’이 찾아왔다.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하나님이 절망의 벽을 뚫고 오셔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셨다. 그 밤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의 병을 치유하셨고, 더 깊이 내 생명을 새로 지으셨다.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내 삶에 새겨졌다. 죄의 그림자가 스칠 때마다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내 신앙의 출발점이자,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주제다. 그 후 나의 길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 교



직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고, 38년 6개월 동안 교단에서 수학교사로 학생들과 함께하며 배움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수학 공식처럼 명료한 논리 속에서도 인간의 연합과 은혜의 미묘한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었다. 삶의 기쁨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라남에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 교사는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선교사다. 학생 하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 한 아이의 마음을 다독이는 순간이 곧 예배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셨다. 부부관계에서 연합함과 용서를 배우며, 하나님과 교회의 신비를 조금씩 깨달아갔다. 세월이 흘러 정년을 백일 앞두고는 하루하루를 다르게 보았다. 퇴임은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또 다른 형태였다. 이른 아침 출근해 운동장을 돌며 찬양하며 기도했다. 교무실에서 내린 커피 향과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 심지어 소음까지도 내게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었다. 일과가 반복되는 가운데 창조 기쁨이 있지만, 학생들의 폭력과 상처, 지친 교사들의 어깨와 낙담, 세속적 기준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죄의 현실을 거울처럼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들리는 소리 보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기도했다. 그때 타락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랑과 회복의 소망이 동시에 숨 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22년 6월 어느 날, 문경새재의 산길을 맨발로 걸으며 흙의 감촉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

“너의 발이라고 마음대로 다니지 마라. 네 길은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나를 깊이 묵상하라.”

그분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걸어온 길의 시작도, 끝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 나는 신학의 길 위에 서 있다. 삶의 어느 시점이든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부르신다. 병상의 절망에서 교단의 헌신으로, 퇴임의 고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 문장이 내 삶을 다시 세운다. 창조부터 시작된 사랑이 타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구속의 은혜로 이어져 회복의 여정으로 이끄신다. 이제 나는 남은 생을 통해 그 사랑을 살아내고 싶다. 나의 직업이, 가정, 오늘 그 하루가 곧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2025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 패널토의

“온누리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과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

사회: 이인용 장로

패널: 이재훈 위임목사, 하선희 대표, 김경훈 집사, 민준호 대표, 이중호 대표 MC

온누리교회 40년의 영적 유산과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온누리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그 유산을 한국 교회에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는 선교, 양육, 말씀, 예배 등 여러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선교를 중심에 둘 때 나머지 모든 게 균형을 이룬다는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온누리교회가 선교에 헌신했기에 다양한 사역을 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양육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교란 ‘예배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온누리교회에 흐르는 가장 본질적인 영적 DNA이자 Acts29의 선교적 정신입니다.

올해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공모전에서도 청년들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우리가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는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Acts30 비전’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DNA가 다음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끊임없이 도전받는 시대에 청년세대에게 영적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 청년들의 신앙과 가치관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법과 제도는 결국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성경적 진리를 굳게 붙들고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터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진리를 바로 알고,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동성애, 낙태 등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단순히 옳고 그름을 넘어, ‘왜 그것이 문제인가?’, ‘우리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요 원인(교회 문화와 구조에 대한 실망, 개인적 이유, 신앙적 이유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관계’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함께 세워져야 가능합니다. 신앙의 선배

세대들은 청년들이 불편해할까 걱정하지만, 오히려 청년들은 신앙의 선배들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멘토와 코치를 넘어 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실패와 고민 등을 나눈다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교회에게 ‘삶의 질문에 대한 실제적 가이드’, ‘공동체적 소속감’, ‘영적 위로’, ‘투명한 운영’, ‘참여의 기회’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 개개인의 인격적 관계가 바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세대를 위해 수련회, 사경회, 아웃리치 같은 ‘계기’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계기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수한 본래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로하는 데 머무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순수한 계기가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으로 흩어진 이후에도 힘을 때마다 성경을 찾고, 기도하는 세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는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청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 보살핌과 방향 제시가 필요한 청년들이 많기에 교회 차원에서 영적 회복을 돕는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청년 공모전 1등 수상 소감

세대와 세대를 잇는 세 가지 방법



이준서 자매
(허브대학부)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청년 공모전에서 ‘성경에 온누리교회 PPL이 들어간다면?’이라는 영상 작품으로 1등을 수상하게 된 양재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이준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의 시각으로

교회의 미래와 역할을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친구 임수현 자매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참가에 의의를 두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큰 상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더욱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교류를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가 가진 영적·물질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음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온전히 전수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세대 간 소통’이라고 봅니다.

일례로, 제가 속한 허브대학부의 멘토님들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조언을 넘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훌륭한 멋진 역할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멘토링 같은 귀한 세대 간의 교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일어나 기성세대와 다음세대가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지혜’와 같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세대 간의 적극적인 연합과 협력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온누리교회가 더욱 성숙한 선교적인 교회로 변모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대 연합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일 년에 네 번, 온 세대가 연합해서 드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제안합니다. 이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교회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대 간의 영적 연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 직종별 연합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합니다. 의료계, 교육계, 예술계, 과학계, 체육계 등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는 기성세대, 사회에 갓 진입하는 청년세대, 해당 분야에 관심을 둔 차세대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각 분야에서만 공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과 윤리적 문제를 신앙의 관점에서 나누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선교적인 기획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온누리교회에 이미 존재하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

다. 온누리교회에는 공동체별, 세대별 양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검증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귀한 자원(프로그램 콘텐츠, 강사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성도들의 신앙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세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같은 비전 아래 강력하게 연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역이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하도록 성도들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방향으로 사역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를 사랑하고, 복음 전파에 뜨거운 열정을 지닌 온누리교회가 그 소중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모전
수상 영상

함께 도시 미자립교회를 살립시다!

“기술은 복음의 생명선!”

도시교회선교팀의 전문 기술을 활용한 ‘재능 선교’

박재광 팀장
(도시교회선교팀)

오늘날 도시 미자립교회는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한 영적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 같다. 그런데 그들이 심각한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된 재정난은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장기간 미흡한 관리로 인한 시설 노후화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환경을 극한으로 몰아넣고 있다.

실제로 많은 도시 미자립교회가 습기와 곰팡이 가득한 지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할 여력이 없어서 목회자 부부가 직접 공구를 들고 교회를 지켜내는 눈물겨운 현실 속에 있다. 지반 침하와 균열 등 붕괴 위험에 놓인 교회도 보고되고 있고, 기본적인 단열조차 되지 않아서 겨울에 성도들이 손을 비벼가며 예배를 드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비단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적 어려움은 곧 예배의 질을 저하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지역 사회에 복음 전도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도시 미자립교회에 대한 시설보수(기술)는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행위를 넘어 교회의 존립과 지속 가능한 사역을 위한 ‘복음의 생명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환경적 어려움은 곧 예배의 질을 저하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지역 사회에 복음 전도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도시 미자립교회에 대한 시설보수(기술)는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행위를 넘어 교회의 존립과 지속 가능한 사역을 위한 ‘복음의 생명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배의 회복, 그것은 복음을 지키는 일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소속 도시교회선교팀은 도시 미자립교회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성도들이 가진 전문 기술을 활용한 ‘재능 선교’를 통해 그들을 돕고 있다. 그 첫 번째 사역지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사랑이가득한교회(박종상 담임목사)’였다. 그 교회는 노후한 시설로 인해 성도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있었다.

지난 9월 말, 도시교회선교팀원들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새벽부터 사랑이가득한교회에 모였다. 공사 당일 오전 6시 30분, 사랑이가득한교회 예배당에서 드린 공사 시작 예배에서 팀원들은 “이 공사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며, 복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재능기부자 6명과 도시교회선교팀 5명, 총 11명이 사역에 참여했다. 밤 11시까지 온종일 사랑의 땀방울을 흘렸다. 단순한 보수를 넘어 한 작은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귀한 사역이었다.

사랑이가득한교회 구체적인 시설보수 현황



“도시교회선교팀 재능기부자를 상시 모집한다.
분야는 전기, 조명, 설비, 타일, 도배, 장판, 목공 등이다.
관련 자격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업계 종사자,
성도, 청년,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다.”

은 이렇다. 예배당 내부는 성도들이 더욱 집중해서 예배드리도록 천장을 페인트 작업으로 깔끔하게 정비했다. 외부는 교회의 이미지 개선과 단열 강화에 주력했다. 낡고 지저분했던 교회 정문은 유립풍 장식으로 산뜻하게 단장했고, 미시공된 시멘트 블록 부분에는 미장 작업을 해서 단열과 미관을 크게 개선했다. 무엇보다 절실했던 것은 화장실이었다. 나이 드신 성도들이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재래식 쪼그려 앉는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했다. 전기, 타일, 페인트, 목공 등 각 분야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교회의 사역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

시설보수 작업을 마치고 사랑이가득한교회 박종상 목사님과 최정애 사모님이 감격에 찬 감사와 간증을 들려주셨다. 특히 교회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교체는 엄두도 못 냈던 화장실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 두 분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화장실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도시교회선교팀이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한결음에 달려와 아침 일찍부터 변기를 교체해주시니 눈물이 납니다”라며 깊은 감격을 표현하셨다.

또한 외벽 공사로 인해 사랑이가득한교회 성도들이 울겨울부터는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사모님은 “겨울마다 외벽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예배 중에도 손을 비벼가

며 버텼는데, 올해 겨울부터는 따뜻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며 눈시울 붉히셨다. 이 간증은 물리적인 환경의 회복이 곧 예배의 회복, 영적인 회복으로 직결됨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열악한 상황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도시 미자립교회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재능기부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 헌신이 필요한 이유다.

역설적 복음 원리가 실현되는 현장

도시교회선교팀의 재능기부 사역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달란트 사역’의 가장 확실한 실현이다. 이 사역은 일회성 봉사가 아닌 도시 미자립교회의 생존과 자립을 돕는 ‘국내 선교’의 실천이다. 실제로 도시교회선교팀원들의 전기, 타일, 도배, 목공, 페인트 등 다양한 기술과 전문성이 지역 사회 복음화의 등불인 도시 미자립교회를 살리는 데 투입되고 있다.

사랑이가득한교회 사역에 참여한 베테랑 기술봉사자 유완열 집사님(수원온누리교회, 69세)의 간증은 이 사역의 은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유완열 집사님은 <온누리신문>에 게재된 도시교회선교팀 재능기부 모집 기사를 보

고 바로 신청했다. 그는 공사 전 몸살감기로 힘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유완열 집사님은 사역을 마치고 “예배당을 보수하는 일에 참여하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도시교회선교팀 대표장로 이영근 장로님은 “지하 예배당의 눅눅한 냄새, 금이 간 벽, 찬바람이 스며드는 외벽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도시 미자립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기술과 재능으로 복음을 지켜내는 도시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새로운 장(場)을 함께 열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시교회선교팀의 사역 현장은 섬김을 통해 오히려 섬기는 자가 은혜를 얻는 역설적인 복음의 원리가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더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가 그 현장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 우리의 재능이 도시 곳곳의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작은 정성과 달란트가
도시 복음화의 든든한 초석

지난 11월 8일(토)에는 도시교회선교팀 산하 재능섬김팀 발대식 감사예배를 드렸다. 사회선교본부 이기훈 목사님과 방찬종 장로님, 최주관 장로님이 참석해서 재능섬김팀의 사역 비전과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선포하셨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도시교회선교팀은 앞으로 도 시설보수가 시급한 도시 미자립교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예배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도시교회선교팀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헌신한 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은사와 자원을 통해서 도시 미자립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 많은 성도의 참여와 후원이 필요하다.

도시교회선교팀 재능기부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전기, 조명, 설비, 타일, 도배, 장판, 페인트, 목공 등 매우 다양하다. 관련 자격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업계 종사자, 은퇴 기술자는 물론이고, 기술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 청년,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다. 그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동참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통해 도시 미자립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달란트가 모여 도시 복음화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문의: 010-2269-1591(박재광 팀장)
010-2684-5312(김현수 총무)

제55회 메시아 연주회

12월 4일 오후 7시 30분 세종대극장

제55회 메시아 연주회가 12월 4일 (목) 오후 7시 30분 세종대극장에서 막 오른다. 60여 개 한국 교회 300여 명의 찬양대가 라푸즈 플레이어즈 그룹과 협연할 예정이다. 흥정표 교수가 지휘한다. 소프라노 홍혜란 교수, 콘트라alto 오스틴킴, 테너 최원휘 교수, 바리톤 이승왕 교수가 솔리스트로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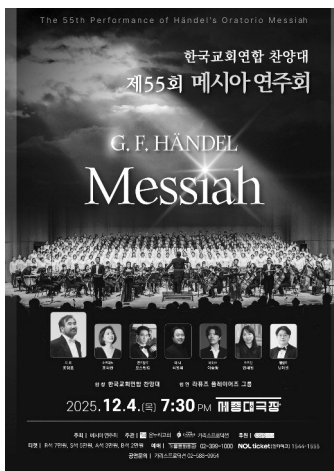
공연은 인터미션 포함 총 120분 진행된다. 7세 이상(2018년 이전 출생자)부터 관람할 수 있다.

메시아연주회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와 카리스프로덕션 주관, CGN이 후원한다. 공연 티켓은 일요일

교회 로비에 설치된 안내 부스, 평일과 토요일 두란노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인터파크, 세종문화회관 티켓 시스템)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B석 2만 원이다. 온누리교회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30%를 할인해 준다.

메시아연주회는 최초의 개신교 연합합창이자 초교파적인 행사다. 1964년 1회 연주회를 시작으로 올해 61주년을 맞이했다. 매년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찬양대원 300여 명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열고 있다.



공연 문의: 02-588-995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부채탈출119’ 참가자 모집

12월 31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부채탈출119’ 참가자를 12월 31일(수)까지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심각한 개인부채 또는 가계부채 문제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온누리교회 청장년 혹은 이들을 추천하려는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대상이다. 가계재정상담을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mayoh@naver.com)로 보내거나 QR 코드로 접속해서 작성하면 된다.

부채탈출119는 재정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부채 및 가계부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부채상담 프로그램이다. ‘기

초상담 및 응급처치’, ‘부채정리 & 안정적 생활을 위한 방법 제시’, ‘채무조정제도 신청지원 & 사회재정관리 상담’ 등을 해준다. 모든 상담은 전문가와 1:1로 진행하고,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이주호 팀장(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은 “부채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부채탈출119’를 통해서 성경적 원리에 따른 건강한 경제생활을 회복할 수 있으니 용기 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10-5550-3655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강동온누리 행복한 부부학교 9기 모집

강동온누리 행복한 부부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강동온누리교회 사관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1월 25일(화)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5만 원. 행복한 부부학교에서는 1주 차 ‘피플퍼즐, 하나님의 가정 원리’, 2주 차 ‘자기애로의 여행’ 등이 이어진다. 2주 차는 1박 2일로 진행된다.

문의: 010-4233-0828

온누리교회 ‘예배 VOD 서비스’ 기록 OTT ‘풍당’으로

온누리교회 ‘예배 VOD 서비스’를 11월 16일(일) 일요일 예배부터 기록 OTT ‘풍당’으로 제공한다. 이전에 CGN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예배 VOD 서비스는 지난 11월 12일(수) 종료했다. 과거 예배 영상은 추후 순차적으로 기록 OTT ‘풍당’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문의: 02-792-0691

목사 안수 소감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사

주하늘 목사
(양재 차세대)

몇 해 전 800km 도보 순례 여정을 완주할 즈음, 듣고 있던 찬양에서 이런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수백km를 걸어 도착한 목적지에서 보게 된 것은 대단한 성취감이나 뿌듯함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길에서 누린 은혜와 한없이 작아 보이는 저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로 무릎 꿇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 가사를 곱씹어보며 주님 앞에 설 날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때 저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도구 삼으셨다 부르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부족한 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직하게 진심 다 하는 목사

이승호 목사
(SNS청년부)

오래전 교회 탐방을 목적으로 온누리교회 주일에 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당을 가득 채운 성도님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시간의 오차 하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하며 서빙고온누리교회 문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교회’ 온누리교회 교역자로, 또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소감을 나눕니다.

신학을 하겠다며 신학과를 들어갔을 때,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는 한 가지 기도제목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바르고 정직한 목회자’ 이것이 신학생 이승호의 기도제목이었고, 사역자로 첫 발을 내딛은 날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지금의 기도 제목입니다. 10년 전 멀리서 바라만 봤던 온누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직하게 진심 다 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도록 성도님들의 묵묵한 기도와 사랑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이 보일 때면 분명하고도 따뜻한 훈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와 한국 교회의 선교 방향

온누리교회-한반도평화연구원 ‘특별공동포럼’ 개최

온누리교회와 한반도평화연구원이 11월 18일(화) 오후 7시 온누리 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에서 특별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는 ‘북한의 새로운 세대와 한국 교회의 선교 방향’이다.

이번 특별공동포럼에서는 조동준 원장(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개회사, 이재훈 위임목사 환영사, 노치형 목사(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담당) 대표 기도, 발표 및 토크쇼(전순영 통일선교팀장 사회, 최선경 교수 발표, 290

박민주 교수 발표, 이창현 교수 발표), 김해기 장로(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위원장) 폐회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한반도 통일과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현장 참가자에게는 행사자료집과 연구자료, 굿즈를 준다.

문의: 010-5792-3

/ 홍하영 기자



‘Joyful Christmas’ 크리스마스 파티

LOVE DIVE 개최, 12월 6일 오후 3시 대학로 이룸 3층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결혼가정문화세미나 ‘LOVE DIVE’에서 ‘Joyful Christmas’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한다. 12월 6일(토) 오후 3시 대학로 이룸 3층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결혼가정문화팀이 주최하는 ‘Joyful Christmas’ 파티에서는 김선우 대표(스토리앤스타일)

가 ‘그리스도인다운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스타일링’을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20대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9090-

6746



양재온누리교회 공동체 하반기 종강예배 안내

양재온누리교회 2025년 공동체 하반기 종강예배를 드린다.

서빙고온누리교회를 비롯한 전체

캠퍼스 공동체 하반기 종강예배 일정은 11월 23일 자 《온누리신문》에 기재된다.

/ 박지혜 기자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11월 21일(금)	강남B	화평홀	19:50
11월 21일(금)	강남C	드림홀	19:30
11월 22일(토)	양재A	목상의 집	10:00

〈생명의 삶〉
QT 프리뷰
(Preview)

QR 코드를 찍으면 11월 셋째 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11월 16일 오후 3시 30분 양재 드림홀

강남A 박명천 이교철 이은자 장미	강남E 김성완 박유신 이순자	황혜옥	양재A 김정숙 김형수 김희정 신장섭
강남B 김대희 김민선 이현제 이혜진 최지우	경기A 남승경 조상연	장미선 한지연	이예찬 이재식 최순월
강남C 김리나 김형순 유상욱	도곡 강진 유상희 최민정 황제성	서초C 김정식 최효영	온누리 박혜미
강남D 신준호	분당B 박혜수 정연호	서초D 오승주	하나 공동체 최경준 최수영 하일라
	서초A 이성아	송파A 조윤아	
		송파B 이성아	

[illegible]

소천 11/5(수) 강남A 고지령 성도 시모상 고 김연식 11/5(수) 도곡 신난영 집사 부친상 고 신현충 11/6(목) 브릿지33+ 김현아 성도 모친상 고 박경례 11/7(금) 과천의왕 김진우 성도 부친상 고 김광현 11/8(토) 고양은평 김승도 집사 부친상 고 김수민 11/9(일) 이촌 정경옥 권사 남편상 고 김동연 11/11(화) 강서 전원아 성도 시부상 고 서진교 11/11(화) 분당B 조현아 성도 모친상 고 고두순 11/11(화) 도곡 윤애경 집사 부친상 고 윤군성 11/12(수) 양재A 고 강기재 집사 11/12(수) 강남E 홍성희 권사 모친상 고 평영희 11/13(목) 일산파주 정한나 성도 모친상 고 정옥남 11/14(금) 한강 임은미 집사 부친상, 박성구 집사 방부상 고 임진석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갈 봉사 신청: VMS 신청, 우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정식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여울평생학습센터 우의동테마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협의회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셔서요. 현금온라인 안내 심일주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오산교회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 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 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뮤니티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한터공동체 예배 피아노 반주자 모집 모집: 피아노 반주자 1명 시간: 매주일 오전 9시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오은철 간사(010-7107-5270) 메디엑세스 약사 자원봉사자 모집 기간: 연중 월 1회(선택 가능) 내용: 메디엑세스 의료사역 참가,약품 준비 및 관리(자세한 내용은 문의) 신청 및 문의: 메디엑세스 사무국(02-570-7110), 카카오톡 '메디엑세스'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건 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양양식) 접수: bam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중등)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1, 3주 연속 연습 오후 1시 30분~3시)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김유미(010-3923-0416)
---	--	---	---